

칼럼

황만기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 · 한방소아과 전문가



부러진 뼈를 빨리 붙게 하려면

'피로 골절(stress fracture)'이란 뼈에 과도하고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쌓여 미세한 골절 형태로 나타나는, 스포츠 선수들에게 매우 흔한 부상 형태이다. 사실 피로 골절은 고된 훈련을 많이 하는 군인처럼 반복적으로 걷거나 뛰는 특정한 작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주 발생하지만 최근 들어 생활체육을 즐기는 일반인들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보통 사람들의 문제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스스로 질문을 해보자. 각종 사고로 인해 뼈가 금이 가거나 부러

졌을 때 나는 무엇을 하는가? 응급조치 이후에는 흔히 말하는 '깁스'를 하고서 뼈가 다 붙을 때까지 조용히 지내는, 즉 시간에만 치료를 맡기는 소극적 대처만 떠올리고 있지는 않는가? 한의학적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고도 명쾌한 방법이 있다. 2006년 'BK 21' 및 '과학기술부/한국과학재단' 우수 연구센터 육성 사업 지원으로 경희대학교 침구경리과학 연구 센터에서 수행된 과학적 논문 '접골탕(接骨湯)이 백서(白鼠)의 골절 치유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히 살펴보자. 이 연구에서는 접골탕의 실제

적 치료 효과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흰쥐의 척골을 의도적으로 부러뜨리고 접골탕을 투여한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회복 과정을 방사선 촬영을 통해 확인했다. 접골탕을 유발한 그 다음날부터 60일간 하루에 한 번씩 접골탕 10ml/kg(체중)를 주사기를 이용해 흰쥐의 위에 직접 투여한 것이다. X-ray 촬영을 통해 뼈가 접골되는 걸을 살펴본 결과 접골탕을 복용시킨 군에서는 3주째부터 골 성장 길이가 0.43±0.27mm으로 성장하였고, 8주째에는 0.93±0.40mm로 성장해 현저한 골절 회복 속도를 보였다. 골절 후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3주째부터 골 성장 길이가 0.11±0.19mm으로 성장하였고, 8주째에는 0.52±0.27mm로 성장해 일반적인 골절 회복 속도를 보였다. 접골탕을 복용한 흰쥐에서 약 2배 정도 빠르게 골절 상태가 회복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접골탕은 한의약적으로 보혈(補血) 작용을 하는 당귀, 천궁, 녹용이 주요 한약재가 되고 보기(補氣) 작용을 하는 인삼 등과 더불어 골절 치료에 효과가 있는 몇 가지 다른 한약재를 엄밀한 비율로 조합한 것이다. 이에 관한 정통 한의학 문헌이나, 주요 성분인 당귀 등의 효능을 입증한 과학적 논문들의 내용은 생략하지만 골절 회복에 임상적으로 대단히 큰 효과를 보이는 유명한 한약 처방이다. 살다가 만에 하나 피로 골절을 포함해 뼈가 상했을 경우, 임상적으로 오랫동안 확인되었고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접골탕이 있음을 떠올린다면 2배 빠른 골절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社說

비상구 폐쇄 엄단해야 한다

안전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추진된다니 기대가 크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최근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안전무시 7대 관행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안전무시 7대 관행은 ▲불법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이끼시트 포함 ▲안전띠(어린이보호좌석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고의적·악의적 피난시설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행안부는 안전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한다. 소방 활동 방해 주·정차 차량과 물건에 대한 이동 조치를 강화한다.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적색 노면 표시 도입을 검토한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방시설 등 중요시설의 표시방법을 황색에서 적색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 중심의 안전한 사회는 불행과 비명을 감수해서라도 안전에 엄격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를 알아야 한다.

기고

박병주 담양소방서장



'부처님 오신 날'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다가오는 22일은 '부처님 오신 날'로 불교의 연중행사 가운데 가장 큰 행사다. 이 날에는 전국의 사찰에서 연꽃 모양의 등을 만들어 거는 연등 행사가 중심으로 다양한 민속행사가 열린다. 하지만 연등이나 촛불, 전기·가스 등 화기 사용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13년~17년) 전국 사찰 화재 분석 결과, 총 262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3명(사망 1명, 부상 1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주요원인으로는 부주의 36.8%(94건), 전기적 요인이 27.09%(71건)로 가장 많았다. 사찰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

였을 때 인근 산림으로의 연소 확대 우려가 높고, 소방차량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며 화재 근절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전통사찰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경비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여 초기대응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하지만 화재예방은 소방서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사찰 관계자들 또한 연등 및 기타 부대 행사 시 안전에 유의하며 화재예방에 힘써야 한다. 먼저 화기취급을 하는 사찰에서는 수시로 연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비람에 의하여 불이 번질 우려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LED 연등도 발화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인증 LED 연등의 발화가능성에 대한 실험 결과, LED 연등의 폭발 및 발화의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LED연등은 반드시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연등선 등 전기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준비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사찰 내에 비치된 소화기는 외부인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고, 옥외소화전 등이 설치된 곳은 시험가동을 실시하는 등 고장여부를 체크하여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우리는 매일 패스컴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를 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들을 다른 사람의 일로만 느껴버려 살아간다. 모든 사고가 내 주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언제 어디서든 위기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망우보회(亡牛補半)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소를 잃고 난 뒤 외양간을 고친다는 뜻이다.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사찰 및 목초문화재 등에 대한 화재예방을 철저히 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容止若思

容止若思

▷ 뜻: 행동(行動)을 덤비지 말고 형용(形容)과 행동거지(行動)를 조용히 생각하는 침착(沈着)한 태도(態度)를 가져야 함.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 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장 이흥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문화용성' (Munhwayongseong) featuring two women. Text: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roles?).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If you think more from the other person's perspective, won't you be more considerate and respectful?).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Your small consideration makes the other person smile. It makes the world warmer. It creates a happy South Korea.)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Media Development Foundation)